

# “트럼프 복귀는 2차 대전 후 미국 주도 세계질서의 종언”

### NYT, 브레이크 없는 트럼프즘에 거래적 고립주의 전망 더는 美 일탈로 치부 못해...나토·한미일 협력 등 시험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질서가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보다 강력한 트럼프즘을 내세우며 미국에 우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는 거래적 고립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진단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더 강력한 미국 중심의 대외·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안보 면에서는 대외 군사개입을 최소화하는 신고립주의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된 인력풀로 정통 보수주의자들을 요직에 기용했던 1기 때와 달리 총성과 위주로 진용을 꾸릴 것으로 예상되고 고립주의 행보는 여과없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전망하면서 “트럼프의 승리로 2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리더십 시대가 끝났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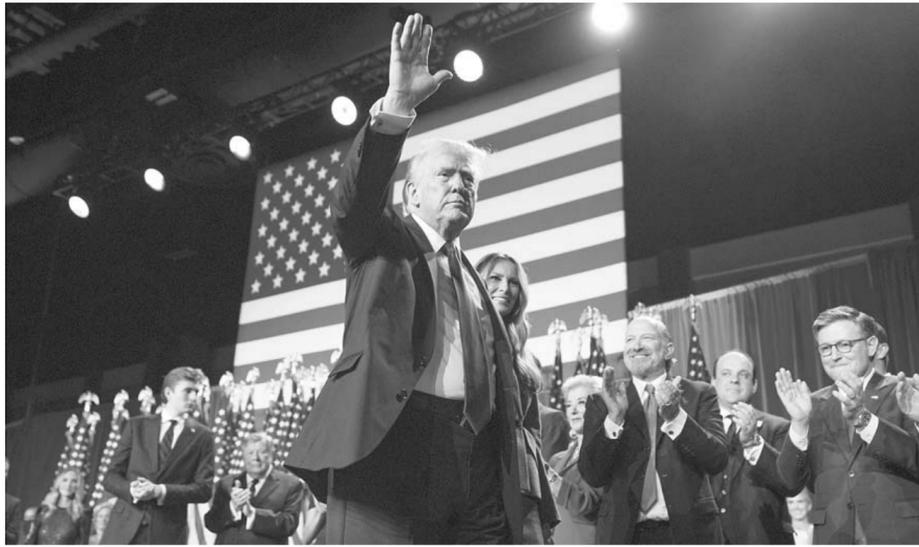
NYT는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세계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감쪽같이 의도할 수 없었다”며 “첫 임기 때는 그 방법을 몰랐고 기득권에 의해 저지됐다면 이제 그는 지식과 동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신문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1기를 미국 역사의 전환점이 아닌 일시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전통적 역할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이번 선거로 트럼프가 일탈이 아니었음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아래에서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NYT는 “해리 트루먼부터 바이든까지 대통령들은 동맹과의 관계를 전력승수(force multiplier)로 봤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부담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그가 방위비를 더 부담하면서 미국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승리를 선언한 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다른 국가를 방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해 온 것을 비롯해 유럽이 러시아에 대항하는 보루이고, 일본이 미국의 태평양 내 항공모함이며,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열쇠라는 등의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거부해온 것도 이런 인식이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냉전 역사학자인 할 브랜즈 미국 존

스홉킨스대 교수는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미국 리더십의 전통을 끝내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으며, 그것을 재조정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미국의 여러 동맹국은 (트럼프 2기에서) 더 순수하고 완전한 미국 우선주의가 초래할 불안정한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을 떠나 있던 지난 4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하는 등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했다는 점이 변수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 중동 정책인 ‘아브라함 협정’을 계승했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 역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나 나토 확장, 필리핀·인도와의 관계 회복, 한국·일본 간 새로운 협력 등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변화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트럼프 2기 외교정책을 가능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재집권 시 신속하게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종전이 이뤄지면 영토 주권은 ‘협상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고, 이는 중국에 대만을 무력침공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보좌관을 지낸 피터 피버 듀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포인터페이스에 기고한 글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트럼프 접근 방식의 본질, 즉 적나라한 거래주의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가 특이한 형태의 거래를 시도하려 할 때 그 맥락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세계는 그의 첫 임기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해리스 “결과 받아들여야...트럼프의 정권인수 도울것”

### “선거패배 수용 민주주의 원칙”...트럼프와 차별화·재도전 여지 남겨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우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날 치러진 대선에서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패배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결과에 승복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투표에 이어 각 주별 개표 과정을 거쳐 자신의 패배가 확정된 이날 모교인 워싱턴 DC의 흑인 명문대 하워드 대학 교정에서 승복 연설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싸워온 결과가 아니며, 우리가 투표하면서 목표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아쉬워했다.

이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승리를 축하했다고 소개한 후 “나는 그에게 우리는 그와 그의 팀의 정권 인수를 도울 것이며,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관여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선거에서 패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 원칙은 다른 어떤 원칙만큼이나 민주주의를 근주제나 폭정과 구분짓는다”고 말했다.

이는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전력이 있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빠” 있는 말이자, 패배에 곧바로 승복한 자신과 트럼프의 차이를 부각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워드대학 교정에서 대선 패배 승복 연설 후 남편과 함께 퇴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이 선거에 승복하지만 이 선거운동에 동력을 공급한 그 싸움에서의 패배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기회, 공정, 존엄을 위한 싸움, 최상의 미

국을 대변하는 이상들을 위한 싸움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권에 재도전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 시진핑 “中美, 싸우면 모두 다쳐” 협력 강조

### 트럼프에 당선 축하 메시지...상호존중·평화공존 희망 전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7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는 축전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중미가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合則兩利)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鬪則俱傷)’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중미 관계는 양국의 공동 이익과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국이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화·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통제하기를 희망한다”며

“호혜협력을 확장하고 신시기 중미의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걸어 양국과 세계에 이롭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도 J.D.벤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 당선 축하했다.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선에서 승리한 2016년엔 당선 확정 보도가 나오고 3시간여가 지난 후 시 주석의 축전 발송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2020년 대선 때는 상대였던 트럼프 현 당선인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자 열흘이 지난 후에야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SONY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